

농가 20년새 절반 '뚝'...부익부 빈익빈 뚜렷

호남통계청 농업 변화 통계...2016년 농가 35만1000명 82%가 年수입 2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상 고소득 5배 ↑ 광주·전남 논벼 재배면적 22% 1위...전남 귀농 전국 2위

광주·전남지역 농가 인구가 20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반면 농업 외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2종 겸업농가 비중과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농업의 변화 통계자료'에 따르면 농가 수는 1995년 26만4000가구에서 2016년 16만3000가구로 38.3%(10만1000가구)가 감소했다.

농가 인구는 1995년 79만1000명에서 2016년 35만1000명으로 55.6%(44만명)가 줄었다.

2016년 광주·전남지역 전업농가는

1995년에 비해 38.0% 감소했으나 농업 외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2종 겸업농가 비중은 4.4%포인트 증가했다.

농가 경영주의 농업경력 20년 이상 비중은 2005년에 비해 6.6%포인트 감소했으나 전체 농가의 7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가별 농축산물 판매 수입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했다.

2016년 광주·전남지역 농가의 53.0%는 농축산물 판매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전체 농가의 81.6%는 2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판매소득 5000만원 이상 농가는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는 2002년 553가구에서 2016년 3478가구로 528.9%가 증가했다.

2016년 전남지역 평균 농가소득은 약 3500만원으로 1995년에 비해 81.3%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 대비 94.1% 수준에 머물렀다.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 경기도, 강원도 순이다.

2016년 전남지역 농가부채는 약 2300만원으로 1995년에 비해 214.6%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 대비 84.8%로 전국 9개 도 단위 중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6년 광주·전남지역 경지면적은 1995년 34만9000ha에서 2016년 30만8000ha로 11.8%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1995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농업의 규모화로 경지면적 2ha 이상 농가 비중은 1995년에 비해 4.8%포인트 증

가한 반면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2ha 미만 경작농가 비중은 4.8%포인트 감소해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2016년 광주·전남지역 논벼 재배면적은 17만1000ha로 1995년에 비해 14.9%, 쌀보리 재배면적은 9000ha로 59.1% 각각 감소했다.

전국에서 광주·전남지역이 차지하는 논벼 재배면적은 22.0%로 최대 규모였으며, 이어 충남 17.7%, 전북 15.6%, 경북 13.2% 순이다.

2016년 전남지역 귀농 가구는 1923가구로 전국대비 14.9%를 차지했으며 전국에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귀농인은 50~60대가 60.3%로 나타났다.

또 2016년 광주·전남지역 다문화 농가 수는 2109가구로 농가의 1.3%를 차지했으며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19.82 (-6.80)
- ↓ 금리 (국고채 3년) 1.78% (-0.01)
- ↑ 코스닥 652.59 (+3.84)
- ↑ 환율 (USD) 1135.40원 (+4.30)



광주은행과 보해양조는 6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보해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상호협력 협약...광은 주거래 통장 개설·보해 제품 애용 등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광주은행과 보해양조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은행은 6일 광주시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김한 은행장과 장용관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채원영 보해양조 대표이사, 황보욱 보해양조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광주은행과 보해양조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체결됐다.

광주은행은 보해양조 임직원들에게 예금·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보해양조 제품 애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보해양조는 광주은행 주거래통장 신규 개설과 신용카드 가입 등 주거래혜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지역 공동마케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시점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벤츠 3개월 연속 수입차 1위

지난 8월 수입차 시장에서 벤츠가 전체 판매량 1위를 지켰지만, 가장 많이 팔린 모델 순위에서는 BMW520d가 벤츠 E클래스를 밀어내고 왕좌에 올랐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등록된 수입차는 1만 7547대로 7월보다 0.5% 줄었다. 다만 작년 같은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10.1% 많았다.

브랜드별로는 벤츠가 5267대를 팔아 3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BMW(4105대), 토요타(1120대), 렉서스(1201대), 미니(826대), 포드(792대), 랜드로버(743대), 크라이슬러(630대), 볼보(602대), 혼다(541대) 등의 순이었다.

연료별로 나눠보면 디젤차가 8559대(48.8%)로 가장 많이 팔렸다.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의 비중은 각각 39%(6835대), 12.3%(2152대)였다. /김대성기자 bigkim@



아시아나항공, 베트남 메이크업 강사 지난 5일 베트남 하노이 하이즈영성에서 열린 '베트남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서비스 특강'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메이크업 강의를 듣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금호타이어 매각 새 국면...박삼구 회장에 '기회'

더블스타와 협상 결렬...자구안 통과시 인수 유력

박 회장 "최대한 협조"

채권단과 중국 더블스타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 단계에 접어들면서 금호타이어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돌아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회장이 채권단 요구대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자구계획을 내놓으면 금호타이어를 다시 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경영권 해임과 법정관리 등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회장은 일단 채권단과 협력 방침을 밝히며 강력한 경영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금호타이어 재인수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는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더블스타 간 매각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다음 날인 6일 오전 출근길에 광화문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자구안 제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 어떤 방안이 회사에 도움이 될

지성의 있게 강구하겠다"고 말해 채권단에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 회장은 또 "(회사가 어려워져) 안타깝다. 회사 경영이 안좋은 건 내 책임이다. 어떻게 하는 게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해 부실 경영 책임이 자신에 있음도 시인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박 회장에게는 호재로 평가된다.

백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시장단

간담회 직전에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사실상 살아났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쪽(박 회장)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단과 더블스타 간 금호타이어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매각 절차가 새로 시작되기에 자력으로 박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악화와 기업가치 하락, 중국 사업 부진 등으로 추락한 기업 경쟁력을 회복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박 회장이 경영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TP·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애로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지역 특화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5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지역특화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중기청과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수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역 특화사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5일에는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사업 간담회를 실시해 광주·전남 TP의 올해 사

업 추진 현황 공유, 지원 기업(4개 사)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토의했다. 또 6일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사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진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장은 "기관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에 따라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기관 간,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특화사업이 더욱 강화가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간담회와 더불어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산업평가단 등 광주·전남·제주지역 9개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운영점검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해 수행기관의 현황을 진단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농막형 1,350~2,350만원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옵션 선택가능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철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1호

부분마취! 최소절개! 단기입원!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허리와 목 질환의 15년간 임상 경험!

척추, 관절, 골절, 정형외과 수술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